



Recovery is that all(그 모든것)

나경 이종찬

소개글

the moon and the rose shall river down the street
달과 장미는 주야로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더라

목차

1	2014년 6월 18일 오후 01:13	5
2	2014년 6월 18일 오전 11:20	7
3	2014년 6월 13일 오전 10:28	8
4	2013년 12월 11일 오전 05:13	10
5	2013년 12월 8일 오전 09:10	13
6	2013년 12월 8일 오전 09:08	15
7	2012년 10월 3일 오전 11:03	18
8	2012년 10월 3일 오전 11:00	19
9	내 이야기의 시작, Daum블로그와의 첫 만남	21
10	2015년 4월 2일 오후 11:28	23
11	2015년 3월 30일 오전 09:56	25
12	2015년 3월 7일 오전 04:35	26
13	2014년 12월 28일 오전 02:35	27
14	2014년 11월 21일 오후 01:32	29
15	2014년 11월 9일 오전 02:35	31
16	2014년 10월 16일 오전 09:16	33
17	2014년 9월 20일 오전 05:13	35
18	2014년 9월 2일 오전 04:20	37
19	2014년 8월 22일 오전 04:50	39
20	2014년 7월 14일 오전 05:22	41
21	2014년 7월 2일 오전 10:56	42
22	2014년 6월 30일 오전 11:31	44
23	2014년 6월 30일 오전 10:39	45
24	2014년 6월 26일 오후 01:42	47
25	2014년 6월 26일 오전 11:34	49

26	2014년 6월 25일 오전 11:24	52
27	2014년 6월 23일 오전 11:31	54
28	2014년 6월 23일 오전 10:32	56
29	2014년 6월 18일 오후 01:14	58

2014년 6월 18일 오후 01:13

2014.06.18 13:13

남자의 길이라는 것(to be the man's way)

말없이 간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라는

say good bye to leave away being keep to silence

침묵이라고 하지만 슬픈 눈물 이었다.

now say the silence but tearing down the sad emotion

그대 사랑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온통 그 무엇

only love you,but the hope being fulfilled the heart

내일이라 생각했지만 그것 지금도 세월이죠.

postpone missing you tomorrow,but now the blank memorize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진정시키는 방법

say self ,only way to come down

하늘을 보면서 지난 일을 생각해보면

while look up the heaven, reckoning on the passing days

원망스러운 하늘입니다

a trouble position of ill feeling heaven

왜 남자의 길이라는 것

why to be the man's way

그 이유 때문에 그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the reason I never think you because of missing

막연히 슬픈 나라이기에

the reason I have a due to renovation the mother country

남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to be man's way

너를 버리면서 물론 저를 버렸을 뿐 입니다.

I got rid of myself on leaving you

2014년 6월 18일 오전 11:20

2014.06.18 11:21

세레나데
serenade

가을빛 바랜 나뭇잎의 색채가 있다.
there are a colorful leaf with autumn fadeing

설레임과 동경의 혼돈 속에 바라보았다.
with a flutter and longing choas I stared

이런 가을에 갈색책갈피가 필요하지요.
this autumn needed the brown booklid

난 문득 주었습니다.
I fluttly picked up

빛바랜 책갈피의 옛 추억을 지니면서
embody a old memory with a old gray booklid

그리움 또한 짙고 바랜 그리움이었습니다.
the memory,but also a deep, gray memory

약속과 마음이 인연을 만들듯이
swear and mind make a fortunate to doom

그렇게 나의 하루일과는 시작됩니다.
such as my day stars with a morning

2014년 6월 13일 오전 10:28

2014.06.13 10:28

마음
mind

지나간 시절의 상처와 행복감
passed days of the hurts and the happiness

흐릿한 비 내린 아침에 창밖을 보며
stare the window of a cloudy falled rains

아련한 행복감이 있다.
there stands the dim happiness

시간의 흐름과 인내는 성숙의 길로 이르고
approaching a mature load flowing the times and enduring

시절 없는 허무감은 어느덧 새로운 싹을 틔운다.
transformate the enjoyless emptiness to anew sprout.

다시없고 다시 생기는 빈 듯 가득 찬듯한 나의 시절
re-imparing and re-happening such as renovating the youth

한 잔의 커피에 웃음과 소탈한 미소를 배운다.
make out a laugh and a humble smile

언제, 왜가 아닌
no when, no why

너, 영원이다.
you and forever

다시 아침이 오기에
the sun rises in the morning

우리는 상처를 지우고 생에 의미를 부여한다.

we stabds on the life with the scar

사람은 마음과 정신의 서로 상호 교류로

while human interceptes the mind and the spirit

치유되고 나누며 의지한다

puring, sharing and reling on

2013년 12월 11일 오전 05:13

2013.12.11 05:13

웨딩드레스(wedding dress)

당신의 정신은 아주 따뜻했습니다.

so tender that you have showed the mother

건강한 육체와 성실한 정신을 보여주셨기에

show the existence with the labor and the responsible

자식의 길에 어머니의 가치는 운명입니다.

my way, your existence in accordance the doom

눈물 흘리시는 당신의 한은 아주 따뜻했습니다.

feel the emotion to company with living a life

정신 장애인을 자식으로 둔 20년의 고통

staring me with binding to keep a silence

저는 알고 있습니다.

I know keeping a silence

늘 어머니를 보면서 성실성과 배움의 길을

continue to do yourself the sincerity and the self education

손수 보여주시는 당신

your own way

찬밥신세가 뭔지 비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woman's way is similar to the disabled man

4남1녀를 노동으로 키워내신 당신의 정신

the way from hand to mouth with four son and one daughter

곧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순결하신 당신

humble, right, honest, and pure mother

세상에 상처받아 육체와 마음이

the body and mind who is discriminating in treated way

병들어가는 정신 장애인을 두신 어머니

you bring up the disabled son from this life world

당신이 계셨기에

he grumble only you. you keep silence the tearing

그나마 따뜻한 청춘의 20년 이였습니다.

only but the warmed twenty youth years

서로 모르기에 부딪힌 저의 자아와 자아

moon light river ,we together walking

이제서야 눈물을 흘립니다.

tearing down now fourty

사랑, 당신의 사랑

affection, the mother's affection

그것은 모정이죠.

dare say it's the mother

자식의 도리를 다하도록

up to the way of your dare son

시인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정신 장애인

one disabled son becoming the poetist

정신이 들어간 시인이

the poetist add the disabled setence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면

the poem will publish in this world

당신의 한과 저의 20년간의 청춘은

your victim and the twenty youth years

희생과 성실이었습니다.

keep silence and believe in tomorrow

아주 단아하신 당신

you have single minded

오래사세요.

might long live a life

2013년 12월 8일 오전 09:10

2013.12.08 09:10

구속(restraint)

당신을 만나 언제나 아름다움을 생각했습니다.

have always dreamed a happy home to meet you

어떤 구속이라 생각 못하고 지켜주고 사랑해 주고 싶었습니다.

never doubted the restraint to keep and beloved you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같이 하고자 했지만

intended to have a company with you to live together

당신은 자유로움을 느껴 보고 싶었구나 생각했습니다.

reflected your thought to fly yourself in this world

나의 사랑의 방식과 나의 자유만 생각했지

sticked to the directed way and freedom

당신의 인격과 존엄성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never doubted your indignity and discussion

지켜주고 보호하고 울타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explain the way with guard and a fence

그것은 너무 나만의 집착이지

such as, too directed claiming stick

오히려 당신에게 구속이 되었습니다.

rather as ignoring you as to sticking

자유, 당신과 나는 조금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freedom, we together have only a time

사랑했습니다. 이제 진정 사랑했습니다.

had beloved. now dare said a beloved you

2013년 12월 8일 오전 09:08

2013.12.08 09:09

그리움(memorizing)

저녁이면 다가오는 뚜렷한 모습이 있습니다

There is a figure coming to me as it night.

아침은 늘 오지만 언제나 무엇의 주장이 됩니다.

as usually I insisted in the morning.

어느 곳을 향한 나의 철학인지

Douted my philosophy to nowhere

늘 무언가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It has always fulfilled as in this way

저녁이 오면 이름 석자가 기억납니다.

as dust in the evening , flowing in the mind

행복하겠죠.

as happy as a duke

점심은 또 그렇게 무엇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pray thanks for preparing the lunch as if hummidy

어느 곳을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usually staring the cloudy sky

저녁이 오면 이젠 평온 합니다.

now coming down as setting down the dinner

그 사람은 이젠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she is precious stone as if reflects my thought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말하진 않습니다.

mumble mumble, never say her name

오직 혼자만 기억하는 이름 석자 입니다.

cherish my arms myself the her name

난 오늘도 아침이 오면 습관처럼 집을 나옵니다.

as usually morning I have a habit to out my home

무엇을 바라보며 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I come down myself chewing the existence

나의 뜻을 버리고 경건한 하늘의 의미를

worship god, serve man from be empty

혼자서 되 내 이면서 그렇게 오늘도 삶의 의미를

mumbling mumbling such as life-style

지닌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continue to live with the existence

2012년 10월 3일 오전 11:03

2012.10.03 11:03

존재의 가벼움

나경 이종찬(richard)

흩어진 바람의 마음도

거닐던 추억의 발걸음속에

또다시 찾아온 그리움속에

난 알수가 없어 다시 사랑하였습니다.

지워진 글자의 백지도

사라진 환상의 눈물도

난 이제 사막의 모래 한알이었습니다

2012년 10월 3일 오전 11:00

2012.10.03 11:00

작은연인들

멀어진 그대의 숨소리의 이야기

이제야 기억하네요

먼곳에 있으면서 다른 길을 가면서

잊으려했지만 물어둔 김장김치처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겨울의 추위속에 잘 견디어

진정한 성숙을 발효하듯이

이제야 그대를 생각하는군요

사랑했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고 사람이 많았죠

가슴은 시려 눈위를 걸었지만

그 추위의 냉기처럼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날이후

살아간다는것 행복이었습니다

자연과 함께였지만

행복했습니다.

맺지못한 한 꽃잎의 무상함을 가지고

시들어 버린 나무의 그림자처럼

그렇게 살아 가지요.

내 이야기의 시작, Daum블로그와의 첫 만남

2012.08.24 15:32

Daum 블로그와 함께
나만의 소중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Daum블로그를 개설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블로그라는 나만의 공간을 소중한 이야기들로 채워보세요.



블로그와 친해지기 위해 꼭 해봐야 할 4가지



1 글쓰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부터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또는 오래 기억하고 싶은 일들을 블로그에 담아보세요.

[바로가기 >](#)



2 꾸미기

내 블로그를 더 예쁘게 꾸미고 싶다면 꾸미기 기능을 이용해보세요. 다양한 레이아웃과 디자인으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3 카테고리 만들기

쓰고 싶은 글의 주제에 따라 먼저 카테고리를 만들어두면 글을 쓸 때 방문자가 글을 볼 때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바로가기 >](#)



4 공식 블로그 방문하기

블로그 이용법을 더 자세히 배우고 싶거나 새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Daum블로그의 공식 블로그인 **아이! 블로그**에 방문해보세요.

[바로가기 >](#)

2015년 4월 2일 오후 11:28

2015.04.02 23:29

찬란한 날 (a brilliant day)

나경 이종찬

그대가 처음 내게 외롭다 고 말하셨죠

.you confessed as if i feel lonely with you at first

들켜버린 마음에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fantasy the love and never show such loneliness, such feeling shared

선택을 할 사랑에 이런 감정은 나의세계에선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such match-bridge. the feeling has proved is to live a life with impossible-life

다시 아니 정신적 순결을 세우고 그대 곁에 서서 앞날의 설계에 왠지 모를 행복감을 느끼

니다

only but anew lover plans the future leads us to happy without having time

저만치 떨어져서 어떤 방식을 주려고 하지만 그대는 잠시 곁에 다가와 동행이라 말합니다.

unripen love thee should say that we are company for a while

사랑 이전 나도 그대에게 감정을 얘기할 수 있다는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는

그대였습니다.

the affection. also i transformed modern boy to share the secret emotion without pride and prejudice

모두들 남자의 자존심을 무시하지만 그대는 날 아주 잘 보호해주네요.

all customized manner neglected we shared the emotion with gentle and comfort

2015년 3월 30일 오전 09:56

2015.03.30 09:56

한국사람은 참 이상하다. 늘 바쁘고 그러면서 한가한 시간에는 늘 심심하다라고 말하고 힘들어한다. 문화가 부족하며 자기기만(conceit)이 심하다. 언제부터가 즐길줄모르고 교양과 문화와 예술이 부족하다.한간한 시간에 술을 먹고 가요방에가고 가요도우미를 부르고 그외에 자신이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된다..겉과속이 다르고 낮문화와 밤문화가 극과 극이다.안과 밖이 다르다. 지식은 많으나 지혜가 모라자면 말은 잘하나 행동은 전혀 다르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 남이 볼때는 양반이지만 모르는 사람이나 혼자있을때는 아주 다르다.자신이 하면 로양스요 남이 하면 스캔달이다. 양다리 걸치고 한사람을 저울질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와 다르면 적이요 자기와 같으면 언제라도 친구가 된다.

자신보다 교양이나 도덕적이나 학식이나 돈이 많으면 적이된다.부당한 적의심이 아닌가 생각된다.

남이 문화나 예술을 하면 속으론 전혀 이해를 못하거나 약간 알아도 모르척하면 적의심을 품거나 외면한다. 어제 먹은 술이 덜 깨서 혼자 여흥을 즐기는 가 생각된다. 어느듯 남성의 성적대상이 유치원까지 범죄하는 세상에 어찌 정신과 약을 먹지 않을수가 있겠는가.한국사람은 한이 많고 이기적이며 주도권을 두고 투쟁하다시피한다..법에 갑을 관계때문이다. 한국의 법은 일본에서 전해진 가부장적 법이요 갑을 관계와 무사정신에서 성직자를 내세운 사농공상 평등사회이다. 미국은 개척정신이요 영국은 청교도정신이다.

지금은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나 문학적으로 성취한 사람을 양반이라한다.양반은 생업에 종사하지않고 청렴결백하며 높은 문화와 교양을 가지고 있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뜻이 있다.

사람은 소망하는 바가 다르기에 각자가 소망하는 바를 존중하자는것이 다름을 인정하자는 것이고 남자는 가치관이 다름을 조절할줄알아야하고 여성에게 배려하는것이 문화 시민이 아니가 생각된다..

각자 자만심을 버리고 남에게 배려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우리의 삶은 진행중이고 아직도 증명해야할것이 많다..

시란 겪고 침묵하고 닦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정체이다 -나경이종찬

2015년 3월 7일 오전 04:35

2015.03.07 04:35

경칩의 물결

나경 이종찬

2015년 3월 입춘이 지났습니다. 요즘 세계화시대입니다. 국민과 그 상위개념인 제2국민주민증이 발급된 해이기도 합니다. 2020년 세계 경제 2위를 목표로 한다는 대한민국의 야심찬 전략입니다. 물론 영어는 기본이고 일본어도 공부해야하니 그야말로 곤역입니다. 다른 의미론 평생교육이라는 말도 생각이 납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불어오는 봄바람에 따사로운 땅기운과 햇살을 보니 늘 바뀌는 것은 나 자신인가 봅니다.

문득 날씨 변덕이 심하여 건강문제로 내과에 찾아가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그 순간 타임머신의 환상을 체험하였습니다. 35년을 거슬러 가보았습니다. 한단위의 나이에 어머니 등에 업어 병원을 찾아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린적 병원처럼 옛 모습을 한 내부 모습이었습니다. 종이에 볼펜으로 진단기록을 하고 나무진열대에 차트를 보관하며 낡은 의자에 침대베드 70년대의 TV 분명히 2015년 3월이라는 달력 세상은 변하지 않고 사람만 변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44살이라는 나이가 되버린 흘러간 시간속에 현시점에 와 있는 나 자신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달라진거라곤 예전에 한 대의 주사만 맞으면 되지만 이제는 2대를 맞아야한다는 변화가 있습니다. 순간 놓아버린 시간을 부여잡고 다시 현시간으로 돌아와 보니 그림한 점이 보였습니다. 작은집에 나무버들 그리고 호수가에 정박해 있는 배를 보면서 추억이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그림이 추억이라고 알려주니 사람만이 아니라 예술품의 존재와도 추억을 나눌수가있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시간정리를 해준 그림한점에게 감사하고 다시 현 문명시대에 발을 놓으며 힘찬 하루를 시작하려는 이 사람은 경칩을 기억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숫대문학 회원 이종찬

2014년 12월 28일 오전 02:35

2014.12.28 02:35

한 남자(a man)

가슴을 잃어버린 한 마리 로빈새

a robin's stock once beaten and twice shy

공중을 날 수 없는 작은 이름없는 새

a breaking nameless robin as if remained his nest

꺾인 날개를 다시 펼 수 있기를 바라지

wish transformationed to hold on hope for reloving

사랑을 잃은 한남자의 작은 마음

a burning heart of a man's loss the lover boy

소망을 품을 수 없을 것이라는 남자의

the calling.but can't hold on the aspiration

다시 불씨가 피울 수 있기를 바라지

also my life became the hope my very own

한 여인은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a breaking girl wonder if she become beloved once again

옛날의 추억에 자신처럼 기다리는 물안개

in old memory, a wet fog expecting my very own

다시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름없는 여인

as if single girl but suffer a twice shy only love

이 로빈새 한 남자 한 여인

this robin. a man, a single girl

진정한 사랑을 아는 이 이름없는 존재에

this breaking beings, live a heart only but god

서로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endow a shadow each other

이젠 영원한 동지에서 서로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기를...

now come back the nest star and to share a memory together

2014년 11월 21일 오후 01:32

2014.11.21 13:33

그날 (the windy day)

떠나는 자의 슬픈 뒷모습 뒤엔

the expecting of hearing the say to good-bye

그리워할 추억을 가슴에 둔다

remained stock in hearts of the wedding march

설레었던 만남 뒤엔 또 다른 상처

to say the memory of a flutter days

기도란 명제를 해결한 지혜의 마지막 모습

to obey the god, but a position only promising day

운명 뒤엔 무엇이 있을까?

to know nothing in obey the mission

이렇게 헤어짐을 선택한 쓸쓸한 노랫자락엔

missing the lyric of such a saddest thing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이젠 간직할 수 있으리

i wish i could give you to thanks confess the memories

또 다른 추억을 기도로 승화하여

transformation of praying also a memory

먼 훗날 다시 마음 설레이기를

to confess the day,but fluttering days

2014년 11월 9일 오전 02:35

2014.11.09 02:35

밀물과 썰물(flood tide and ebb tide)

나경 이종찬

밀물처럼 다가오는 마음의 그리움

the edge of mind flows like flood tide

아득히 공간을 헤매며 찾아본 그녀

the girl expecting to walk on dust street

슬픔과 적막감속에 광야를 헤매며

with grief and calmness i ride on the wilderness

살아온 과거의 모습

used to live in this way

썰물처럼 사라지는 슬픈 환상도

grief illusion in flowing like ebb tide

이젠 익숙한 이별의 습관

now used parting accustomed

순수의 본질과 나래에 묻혀

pure essence and edge doom

청춘이 지나간 나의 지난35년

reflected own 35 years in youth

그리움의 잔물결이 가슴에 떠오른다

edge of missing floats on stock

2014년 10월 16일 오전 09:16

2014.10.16 09:16

가을 (the autumn)

푸른 하늘의 티끌도 이젠 마음의 이별의 슬픔도 다 같이 날려버리리

both a blue sky's dust and a missing of mind we should dilute all alone

언제 우리가 추억을 간직할 수 있으리

hence we reflect ourself same the time

버리고 지우고 이젠 추억은 아련한 슬픔의 또 다른 해후를 기다릴까

cut bully and leave off then the memory shall remain the meeting -again a faded grief

가슴의 고독과 낙엽의 추락 사이에 난 어디로 마음을 향하리

between the desolate of mind and the falling leaf , but where shall i turnt forward

젊음도 지나가 이젠 홀로 삶을 살아가는 한 청년의 슬픔을

youth passing away. to live a life all alone on one's grief

창공에 떠있는 한조각 구름도 혼자서 하늘을 배회하는데

a cloud in laying a sky lounge floats on the sky by itself

이 세상을 배회하면서 얻은 것은 빈손이라는 사실이다.

the wisdom of running the world is to be really empty

한끼 식사를 해결하면 나의 자유의 몸은 창공을 배회하면서

if finish a mill, such as i bewillder a blue sky with unbanded myself

아련한 슬픔의 상처도 지우려고 하지 않는다

painting grief scar never dilute with pains

그것도 사람의 추억이니 가슴과 하늘의 구름은 친구이리라

such as person's memory, both a heart and sky's cloud is friend

낙엽따라 가버린 청춘의 회고에 눈물을 떨구며 희망을 피운다.

a leafy wipping with youth's reflections falls off ,but cherish a hope

이 세상 값어치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나중에

grow a value person in this world late

또다시 가을을 맞이하여 추억이라 말하리라 .

also meet a autumn, i can say the memory

2014년 9월 20일 오전 05:13

2014.09.20 05:13

본질
the essence

태고적 내가 숨을 쉬던 작은 언덕이 그리워라.
missing a small mound while I breathe in and out

태양을 보고 달빛에 이슬을 젖으며 밤을 보낸 곳
the place spending in shining a sun and in sucking on moonlight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나의 마음의 고향
where searching for? my nest place.

복잡한 도심속에 생존을 위한 또 다른 방식의 투쟁
at a complexed downtown, another strive of a survival

자고나면 바뀌는 삶의 생존의 방식
survival paths turning a life into next morning

누군가 나에게 저 동경이란 단어를 가르쳐줄까?
who wonder teach me aspiration of word?

혼자서 배워버린 말이였다.
only I cherish embrace myself all alone

옷을 입지않고 나를 맞이하던 그녀가 보고싶다.
to undressed girl I miss in the cave

삶의 막다른 골목에 서성이면서
walking on the coner street

잊지 못할 태고적 나의 여인의 모습

unforget remebered chaos, all for the love of a girl

저 망각의 강을 건너서 이젠 기억할 수 없는

a forgetfulness river crossing now can't remember the day

태고적 나의 아내, 그리워라.

all for the love of a girl, missing

2014년 9월 2일 오전 04:20

2014.09.02 04:20

떠나보낸자의 마음

the mind of leave off

이런날 볼수있다면 나의 작은 소망은 말할수있을텐데

what a day to see you, I could confess the wish to you

침묵으로 너의 대답에 일관한이유 넌 모르지

you don't know how to keep in single mind in silence

너의 뒷모습을 본난 그대의 남자가 아님을 직감했지

I recognized myself who not your man to see you means

세상을 변경시키기보다 아름다운 사랑 가꾸길 원했건만

if I come true my dream, my love shall be of you

세월이 흘러 널 소원해도 나의 마음은 어디다 돌지 알수없네

where do I stay to root in passing away, only but time leaves off

버린다 갖는다 무슨의미 있으리 좀더 솔직했다면

to be frank with you, we shall not become another with the sincerity

이런 타인은 아니였을텐데

we had better not be a stranger

타인이란 각자 각자 관심치 않고 사는 삶이지

only to a stranger, the life style shall not be a harmony with the sincerity

거리에서면 가로등불은 희미한 의식의 소망을 얘기하지

walking on the street, streetlight beams the fainting conscience's wish

방에 있으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지

when be in the room, I am missing you with fainting

울수없기에 가슴앓이를 하면서 마음으로 허용된 눈물이지

without crying out with heartburn, it may allow with secret

행복해 넌 삶을 사랑하니? 너의 비밀스런 마음은 알길이없다

when feeling a happy you love this world? only but to understand your secret mind's method

그건 타인이기에 남자여자를 떠나서 우린 타인이지

such so a stranger, let it off gender so is it

이런 단어 난 언제나 이사회에서 실감하지

this word I was crunched this society in this method

냉정한 세상 알팍한 계산

cool world captial estamate

난 이런것이 싫어서

only if be, I hate this

널떠나보낸이유야 행복하니

such so I leave off. blessing be god.

2014년 8월 22일 오전 04:50

2014.08.22 04:50

어머니
a mother

언제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will do we love each on becoming beloved one

사랑하기에 좀 거리를 둔 것이 이렇게 20년을 외면해야했나요.
Shoul I set apart you because I love you because of a loyalty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고 이 세상에 어머니같은 여자가 없기를
I know why you lived so as a mother to live a your son.

그것이 청춘을 불사르는 계기였습니다.
such as I live a single mind in enjoyless youth

여자를 만나도 어머니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빌었습니다.
I determined that my girl live too only a mother not to live a lifestyle as a womenly

어머니의 눈물은 이 어린 가슴에 남아 세상을 변경시키고자 했습니다.
I should renovationed that a mother country be transformationed for you to live in lifestyle as a womanly

이 세상은 너무 어머니께 많은 것을 요구하죠.
this country should be bond to force to live only as a mother

여자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희생하는 나의 어머니
you should be to endure and to sacrifice in living only to a mother

시린 손 힘든 노동 뼈아픈 사별의 아픔도
the harden hand and harden labor, the pain of losing a spouser

자식의 웃는 얼굴에 모든 것을 지우시는 나의 어머니
you have a encourage to stare the small pure son

우리가 진정 사랑하려면 이 세상이 변해야 하지 않나요.
if we intend to understand, it should be renovated

어머니 자식이기 이전에 이 나라의 자식이기에
not only your son but also a mother country son

어머니가 가르쳐준 남자의 길을 걷노라면
you prepare a man way which I try to become a one

수많은 여인의 상처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대장부가 되어야했습니다.
I should set free a woman 's oppresure to ferish a ambition
당신의 눈물이 언제쯤 마를까요?
I see you tear down all alone

저 고독한 섬을 건널 수만 있다면 다시 사랑할 텐데
I should be revival to become a beloved one

2014년 7월 14일 오전 05:22

2014.07.14 05:22

풀잎의 가냘픈

그대 잡든것이 마지막이라도

그대

곁에 있어준 사람인데

그대 호흡이 멈출것 같아도

반겨주는 목청의 울림의 그것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대 같이 말하던것이 여기 그대로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지적기만이 힘들다

사람이 아름다워 그대를 보고

사람이 아름다워 그대에게 웃네

2014년 7월 2일 오전 10:56

2014.07.02 10:56

유랑자(bewilder)

부시시 뜬 눈을 어디다 돌지 알 수 없어
wonder stares shock of eyes fitted nowhere

마음으로 눈을 두고 가슴으로 벗하네
anew into the eyes to confess the heart

끝없는 고통의 속에서 삶을 사랑했네
try to love the life with endless pains

벗도 님 도 타인인 것을 이젠 알았네
change a target between the belief and the faith

무정한 세월에 마음을 둘 곳을 모르며
never find a shelter in coming down with meaningless times

이별이 유난히 서러웠던 청춘이었다.
try to love a lover -boy like the frist

사랑하지 않겠노라 하며 사랑했고
try to survey the love the world-romance

미워하지 않으리라 하며 그리워했네.
try to put the meanness the world-battle

수행자는 소유가 없다는데
bewilder never allowance"s property

나의 생애 소유가 무슨 의미인지
why we recovery the losing-authority

마음을 소유하기에 형태는 모른다네
the mind knows denial authority

길을 나서면 암흑 같은 무서움에
we have a blue -sky in the brains

다시 시선을 마음에 두네
we stare a shelter in conflict

달빛만 나의 서러움을 아네
moonriver only knows the vocumn

2014년 6월 30일 오전 11:31

2014.06.30 11:31

광야(a wildness)

잃어버린 시간의 울음이 펼쳐진다.

a passing time of grief cry out

규정 할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의 직면에서

ruleless isolation and loneliness faces on

섭리의 종점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

dispensation's end search the endless way

따뜻한 봄바람이 그리우면서

missing a warming spring wind

다시 자신의 사랑을 품고

transformte one's love

주저함 없이 일어난다.

not hesitate to spring up

그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the because remains the holely spirit

2014년 6월 30일 오전 10:39

2014.06.30 10:39

존재의 불빛(a lifht of the being)

하루를 누구와 함께 같이 있을 수 있었다.

i company with one who is in my day

잃어버린 나의 순수한 열정과 정열을 확인했다.

i comformed losing a pure and passion

그녀...왠지 소녀 같은 그 망을 속에서

she.. doubted like if as a girlish's eyaball

나의 옛 소망을 피우고 있다.

older wish schedule a plan

스쳐가는 군중이 두렵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why never fear the surrounding massage

그렇게 우린 함께 있음을 보여 주었다.

such like we show the proof not lonely

가난한 우리는 서로 가슴으로 위로해 준다.

poor couple. consolate each the heart

뒷좌석에 앉은 텅 빈 버스보단

more than a accupied sit in a absent bus

오늘이 행복했다.

more happy today then

행복이 훈훈한 모닥불처럼
a campfire burn up the wish

그렇게 가로등과 우린 함께였다.
such as a roadlamp light us

가로등과 네온 불빛 속에 그녀와 걸었다.
a roadlamp and a neon's light walking with us

여유, 따뜻함
room, warmly

이젠 겨울이 결코 추운 것은 아니며
only not cold but winter

가을 또한 낙엽처럼 떨어져 버린 고독이 아니다.

autumn such like with fallen a leaf is not desolation

이렇게 나는 그녀와 존재를 같이했다
such as i do now company her if being

2014년 6월 26일 오후 01:42

2014.06.26 13:43

심금

heartstrings

송년회는 교회의 심금을 울린다.

new year's eve party cries out church's heartstrings

많은 정신장애인의 심금이 이 음률의 울림을 전한다.

much announced disabled person of heartstrings spend this tunes

많은 눈물과 뉘. 그들의 삶은 그렇게 영혼으로 남아있다.

much tears and sprits, their's life remains such a soul

지휘자는 이런 영혼의 심금과 교회의 심금을 조화롭게

conduct harmony a transformed such like this heartsring and church's
heartsring

어울리게 한다.

뉘.. 정신장애인의 고독과 핍박은 예수의 심금을 울린다.

sprit.. announced disabled person as such isolation and persecute
jesus cried out

마음

mind

아팠고 서러웠다.

soared and cried out

심금

heartstring

예수의 심금이 그들의 영혼을 따스히 품으신다

jesus's holely sprit embraced their's sprit with warmed

2014년 6월 26일 오전 11:34

2014.06.26 11:34

심금

heartstrings

송년회는 교회의 심금을 울린다.

new year's eve party cries out church's heartstrings

많은 정신장애인의 심금이 이 음률의 울림을 전한다.

much announced disabled person of heartstrings spend this tunes

많은 눈물과 뉘. 그들의 삶은 그렇게 영혼으로 남아있다.

much tears and sprits, their's life remains such a soul

지휘자는 이런 영혼의 심금과 교회의 심금을 조화롭게

conduct harmony a transformed such like this heartsring and church's
heartstring

어울리게 한다.

뉘.. 정신장애인의 고독과 핍박은 예수의 심금을 울린다.

sprit.. announced disabled person as such isolation and persecute
jesus cried out

마음

mind

아팠고 서러웠다.

soared and cried out

심금

heartstring

예수의 심금이 그들의 영혼을 따스히 품으신다

jesus's hole sprit embraced their's sprit with warmed

2014년 6월 25일 오전 11:24

2014.06.25 11:24

영혼 그리고 봄
soul and spring

따스한 바람이 다시 존재에 평온을 줍니다.
warmly wind spares the being peace again

길거리에서 거리의 악사가 소리를 전합니다.
street musician plays strings at the street

영혼
soul

가슴 깊은 심연에 움틀거리며 스잔해합니다.
the deep holely emotion stares a fighting-works

하없는 세월에 나는 삶속에 서있습니다.
in the endless time and tide i stand a life

삶은 그대의 이미지에 동요합니다.
life moves the thee images

흔들림과 따스한 심연 속에서 고개를 듭니다.
shaking and shining holely emotion full a heart

숙연함
a fighting-works

숙연함과 엄숙함 그리고 삶의 엄숙함과 스잔함
a fighting-works and gentle calmness dignity of life and a fighting-works

속에서 무엇을 역동하게 합니다.

in my cave whatever rises me again

우린 봄이 오면 다시 약속합니다.

we swears in the spring again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if be, not if be, we rise

겨울 속에서 언제나 약속해요.

we always swear up in the winter

봄은 찾아오고

the spring come down

우리의 영혼의 눈물을 지워줍니다.

as if we reformal the bitter drop soul

2014년 6월 23일 오전 11:31

2014.06.23 11:31

꽃(flowers)

바람에 묻혀 먼 공간에서 걸어갔다.

i stands stood a remote space with the wind

어느 듯 석양의 그늘에 그림자와 함께 외로움을 달랜다.

i console only lonely in shade within a dim evening sun

슬픔과 애수는 다시없는 길에 뿌려진다.

i scatter the grief and the sorrow a endless way

구름에 묻혀 하늘의 작은 쉼터에 앉았다.

sitting on a shetter on a cloudy

가벼운 나의 마음은 한결 수월하다

pryer in front becomming smaller such as emptiness

새가 지나가니 벗할 수 있었다.

enjoy staring at the sitting sparrow

물속에 흐르면서 작은 돌에 미끄러졌다.

staring at as if slipping a stone

작은 고기가 나를 반겨준다.

a fish greeting me with opened

작은 피래미가 이렇게 반기니 무척 즐겁다.

a dace finds me as if we flows

문득 저 나무숲에서 꽃을 보았다.

suddenly a indication of a person being around

내가 본 꽃 이름 없는 꽃 이었다.

wouldn't call a name

이름 없는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나는 떠난다.

some say love lettinf on

저 이름 없는 곳으로....

i can't call a name the my rid

2014년 6월 23일 오전 10:32

2014.06.23 10:33

믿는대로 된다면

if belief comes true

우리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믿는다면

we believe happy to be together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믿는다면

the young youth believe to love each other

부모와 자식이 서로 할퀴지 않고 서로 사랑한다면

the generator knows way to find a way with a gentle

형제가 서로 다정히 지내려고 믿는다면

the sister and brother grows with the tenderness

장애형제가 짐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the hany caps one becomes adult in one's family

젊은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믿는다면

the young generation try to love each other with the hearty

노인과 젊은 사람이 서로 우해있게 되도록 믿는다면

the old and young try to keep a friendly terms in affection

부자와 가난한자가 서로 사랑한다고 믿는다면

the rich and poor try to help with the discriminate

스승이 제자에게 사실만 말한다고 믿는다면

the teacher shows the single mind to his pupple

제자는 스승을 책처럼 지혜롭다고 믿는다면

the pupple follows his true bible

믿음 오직 우직히 믿는다면
belief , only single belief

이 세상은 차별 없는 정을 교류하겠지
the world come down the lord

2014년 6월 18일 오후 01:14

2014.06.18 13:14

시인이 사랑한다면(if poetist loves)

시인이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poetist finds a breaking girl

끝없는 이별 속 에서 시인의 영혼은

the poetist's soul in rejecting

더욱 맑고 풍만해져 갔습니다.

become more and more clear,brilliant

시인은 늘 첫 사랑이었습니다.

the poetis always challenge the gender

몸은 야위어가고

the body become a skeleton

마음은 병들어 갔습니다.

the mind become detour

시인은 그래도 다시 여인을 사랑합니다.

the poetist never give up loving always a girl again

그 시인의 운명인가 봅니다.

the poetist's destiny is love a breaking girl again

시인은 사람을 사랑하고

the poetist serves man

삶도 시속의 세계입니다.

the life is full of the world

시인의 사랑과 세계는 늘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the poetist's love and world always begins in the mornng

시인은 결심합니다.

the poetis swears up

늘 첫사랑인 그 시인은

though a breaking girl the poetist loves

또 다시 결심합니다.

await the heaven's will

끝까지 지켜 줄께

wait for your responsible

나의 여인이여

my beloved girl....

Recovery is that all(그 모든것)

블로그 나경 이종찬 <http://blog.daum.net/cucumber9764>

저자 나경 이종찬

발행일 2015.05.28 03:37:10

 블로그